

'섬' 향해 쏟아내는 투명 언어 깊은 울림

현장 언어학자 니컬러스 에번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사라지는 언어…」
노벨 문학상-제주명예도민 르 클레지오 「라가-보이지 않는 대륙에 가까이 다가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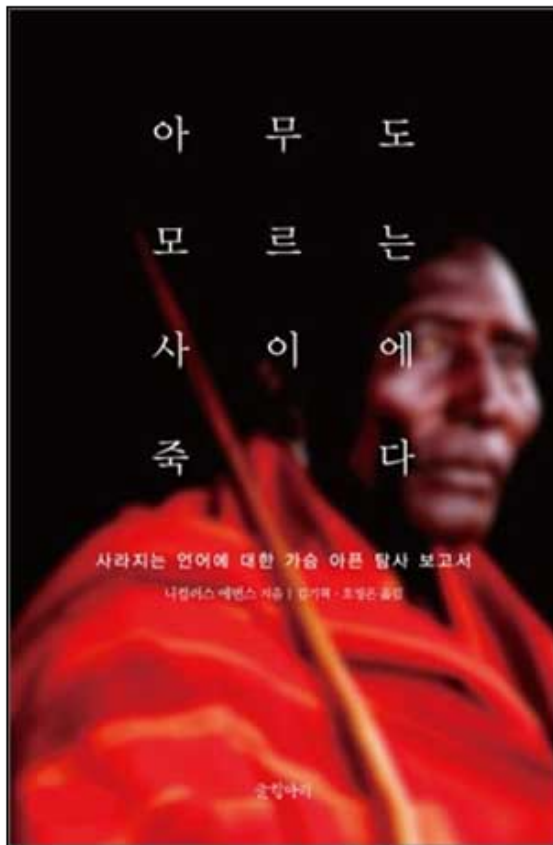
등록 : 2012년 06월 15일 (금) 17:33:49 | 승인 : 2012년 06월 15일 (금) 17:51:32
최종수정 : 2012년 06월 15일 (금) 17:50:0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레드북 홈페이지'에 등재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훌쩍 지났다. 유네스코가 기준으로 한 소멸 위기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규정됐다며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잠시, 그 안에 녹아 있는 지역성이며 정체성은 시나브로 약해지고 있다.

'이어도'는 또 어떠한가. 해양주권의 상징으로, 또 제주 문화 정체성의 근간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에 대한 규명이나 연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외교적·경제적 이유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엿보인다.

저명한 언어학자와 제주를 사랑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최근 펴낸 책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귀빔을 숨기고 있다.



#니컬러스 에번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사라지는 언어에 대한 가슴 아픈 탐사 보고서」

얼마 전 노스 텍사스 대학 연구팀이 '한국방언' 연구 차 제주대학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주어로 시작된 조사는 자연스레 무속 문화로 연결되며 교류의 폭이 확대됐다. 그날은 알 수 없었던 '언어'의 힘이다.

'현장 언어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니컬러스 에번스 호주 국립대 교수의 생생한 기록 역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언어가 생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 인가를 강조한다.

그는 "이 책을 쓴 것은 인류의 사고, 즉 6000개에 이르는 언어를 통해 구축되고 전해 내려온 사고의 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직 괜찮다'며 애써 위안하고 있는 제주어의 시간이 보통의 속도보다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경고다. 에세이처럼 가벼워 보이는 글은 그러나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언어의 위기를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사라져가는 언어의 증언자들과 직접 생활하며 겪은 경험으로 채워지며 진중해진다.

에번스가 추구하는 '현장성'은 흔히 소수 언어를 어렵게 간직하고 살아갔던 그리고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언어 구사자에 대한, 사명감을 앞세운 '단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표준언어라는 규범에 갈혀 '소수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왜 언어 소멸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담담히 일러준다.

제주어는 표준어 중심주의 속에서 외국어 취급을 받는다. 등장인물의 성장 배경을 암시하는 역할이 아니면 어색한 표현도 모자라 자막이 따라붙는 '특별' 취급을 받는다. 정말 그 뿐일까.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말을 이렇게 귀결된다. "제주어가 사라지면 제주의 정체성이며 생활양식도 사라진다". 글항아리, 2만3000원.

#J.M.G. 르 클레지오 「라가-보이지 않는 대륙 가까이 다가가기」

문학을 통해 세계 여러 문명의 소통과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가 만난 섬은 제주처럼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땅이다. 비밀과 비극이 공존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 섬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까지 제주와의 인연과 닮았다.

2006년 발표된 이 책은 르 클레지오의 자연 친화적 문학 경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제주를 알기 전 흔적들은 그가 2007년 제주를 만난 뒤 4·3과 잠녀, 돌하르방 등에서 섬 정체성을 읽어내고 깊은 공감을 한 이유를 알게 한다.

섬과 만나기 전 작가가 주목한 곳은 다름 아닌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대륙, 오세아니아였다. 역사의 굴곡과 상업화에 가려져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보지 않았던 신비의 땅, 꿈의 대륙에서 르 클레지오는 '천국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돌보기로 작은 섬 '라가'를 택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라가 섬의 신화와 전설이 깨어난다. 라가에서는 모든 것이 신화,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 옛 신화와 현대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고 스며들면서 이 땅의 본질을 만들어낸다. 다음은 약탈과 폭력 등 외부세력에 의해 자행됐던 섬이 품은 어두운 역사다.



식민 시대가 종식된 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된다. 혼란이 수습되고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세계화의 물결은 이 땅을 산업과 관광의 시대로 단번에 내몰았다. 또한 서양의 시선으로 섬 민족들의 역사가 왜곡되고, 그들의 언어는 폄하된다. 어딘지 낯설지 않다.

르 클레지오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라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자신들의 자연과 전통, 문화를 지켜나갈 힘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또한 '보이는 천국'의 이면, 그 아픔을 잊지 말고 깊이 들여다볼 것을 호소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다. 문학동네, 1만2000원.